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장학월보

Vol 249 2013 / 11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낚시를 창가에 드리우니

글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 시인 **성선경**

방금 물에서 건진 달을
척 하니 서편 창에다 걸어 두고
깨진 사금파리 별들을
그 곁에 흩뿌려
적막하니 구름이나 한 점
찰방찰방 건너게 할까?
창가에 낚시를 드리우니
동심원을 그리는
마음 하나
시간을 건너는 발자국 소리
저 큰 하늘을 다 비우는 적막
생각의 생각을 건너는 저 달은
자박자박 어딜 가시나?
낚시를 드리우니 나는
적막하고 구름이나 데리고
찰방찰방 물방울을 튕길까?
방금 물에서 건진 달을
척 하니 서편 창에다 걸어 두고
적막하니 구름이나 한 점
찰방찰방 건너게 할까?
창가에 낚시를 드리우니
깨진 사금파리 별
생각이 생각을 건너는 창가에
동심원을 건지는 적막의 소리
자박자박 어딜 가시나?

contents

04 권두언
최고의 공부 / 고영진

06 생생현장

08 교육칼럼
교사(校舍)는 학생의 생활을 담는 그릇 / 이종덕

09 특별기획 / 창의 · 인성교육
창의 · 인성교육의 방향 / 김윤정
경남교육청의 창의 · 인성교육 이렇게 합니다 / 박혜숙
우리들의 꿈을 위한 진로 · 진학 프로그램 / 성정기
맛있는 배움, 체험, 나눔이 있는 통큰보쌈 교육 / 구남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우암교육 / 정민화

18 교육정보
교육기부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성수민

20 좋은 수업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공책에 기록하는 사회 수업 / 정철희
수학도서를 활용한 수학과 독서고사 / 손대원

24 함께하는 학교
더 높은 꿈을 향해 SKY-high! 합천 창의인성 교육과정 / 이현석
3S-UP 교육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 정명규
생각의 열매를 키우는 생활 속 수학 놀이 / 이연욱

31 이달의 교사
장애를 극복하기까지 / 신수진

33 삶의향기
삶의 향기 / 진영순
공부와 인성 / 임봉순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 김진웅

36 동아리 탐방
독서토론으로 한 걸음의 탄탄한 인성교육UP '아고라북' / 양미현

38 행복한 책 읽기

39 지상갤러리
가을 이야기 / 장현숙

표지사진
친구와 꿈꾸는 미래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2월호 모집 기간 : 2013년 11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함께하는 학교, 좋은수업, 삶의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3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곽동국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광보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오영선
편집위원 | 김정애, 김강희, 이유경, 이광호, 홍연숙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최고의 공부

산을 따라 내려온 단풍이 도심의 가로수 길도 비단길로 만들었습니다. 스치는 바람까지 넉넉함을 더해주던 가을은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펼쳐 보입니다. 행복한 계절, 도민 여러분과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그저 고맙고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7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1,257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올해 수능시험에는 작년에 비해 1만 7천여 명이 감소한 65만 7백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3만 9천여 명이 초 · 중 · 고 12년 여 동안 축적해 온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그 무덥던 폭염도 참아내면서 대학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수험생 모두에게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힘'은 아주 특별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고 최단기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희망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부도나지 않는 투자가 되었고 교육의 부가가치를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통한 성취를 위해 올인을 해왔습니다.

대학은 마치 의무교육처럼 누구나 꼭 가는 곳이 되어버렸고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고학력 인플레와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취업준비기관이 되고 학력인플레는 청년실업률을 증가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학만큼 치솟는 대학교육비는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만 안겨줄 뿐 희망이었던 교육이 학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만 올려놓음으로써 더 이상 결코 희망이 아닌 적색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실천하는 공부는 결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은 아닐텐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을 가기위한 준비과정이 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고의 공부란 무엇일까. 수능 시험장 여러 곳을 점검 차 둘러보면서 '공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창의성의 천재들에 대한 30년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고의 공부'를 쓴 케 베인은 "우리가 연구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 역시 학교에 다녔다. 그들은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은 덕에,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들은 높은 성적 같은 외적 동기를 무시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창의력을 부르는 습관의 힘은 열정과 호기심, 내적동기입니다. 비전을 세우고,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며, 이상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기르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육에서는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답하는 학생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창작은 느리고 꾸준한 전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뭔가를 붙들고 진득하게 노력해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공부'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걷는 데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지면서 일어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면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천재란 이 천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창의성은 실패한 뒤에 얻을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우리 학생과 자녀들에게 '최고의 공부'를 위해 내적 동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2013. 10.

경상남도교육감

❶

❷

생생현장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❸

❹

❶ 부울경 교육청 국정감사
❷ 사랑의 동전 나누기 성금 전달
❸ 창의인재포럼 참석
❹ 동화책 읽어주는 교육감 할아버지

❺ 싸이클 금메달 최슬기 선수 격려
❻ 기능경기 참가 선수 격려
❼ 전국체전 결단식
❽ 초등 지역 대표 교장단과 공감토크
❾ 부여 탐방 (김해도서관)
❿ 진주교육사 발간 기념회 (진주교육지원청)
⓫ 원어민 담당교사 우정캠프 (통영교육지원청)

❺

❻

❼

❽

❾

❿

⓫

교사(校舍)는 학생의 생활을 담는 그릇

글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장 **이종덕**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건축물은 다양한 기후조건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맹수나 독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비교적 어두운 쪽에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본 적이 있다.

또 건축물은 자신을 창조한 주체인 사람과 영향을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변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 종교 등 모든 것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되기도 하고, 그 효용이 다하면 사라지기도 한다.

건축물은 인간의 훌륭한 창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생명체라 할 수 있겠다. 학교건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사(校舍)는 그 역할적인 면에서 기후와 상관없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Shelter)의 역할도 하며, 친구와 같은 역할도 한다.

교사(校舍)는 학교라는 공간을 구획해주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좋은 건물의 상징이던 때도 있었으며, 또 주거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적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의 학교시설 역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해도 좋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사(校舍)가 단순히 학습의 공간만을 제공하는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육체적 ·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교육의 도구이고, 우리사회의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중요한 "학습과 문화의 장"이라는 부분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여기에 한 가지 희망을 더 얹어보고 싶다. 옛말에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것이 있다. 어느 농부가 보리가 더디게 자라는 것이 애타 빨리 자라도록 그 싹을 잡아당겼더니, 모두 말라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그 순리를 억지로 거슬러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이라 생각한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많이 성숙해졌고, 빠르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만이 능사인 시기는 지나갔다. 어느 나라에서는 100여년에 걸쳐서 성당을 짓는다 하고, 일본은 학교 짓는데 우리나라보다 두 배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고속 경제성장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건축을 공부하고 30여년 학교건축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학교신축 행정시스템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아이들의 육체적 · 정신적 성장을 긴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교육적 · 공학적 · 문화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한 절대시간을 보장해야만 더욱 훌륭한 학교건축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기획

창의·인성교육

경남교육은 창의 · 인성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과업과 인생을 설계하고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

창의 · 인성교육의 방향

글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창의인재단장 **김윤정**

자기주도적으로 과업과 인생을 설계하고,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 교육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모토가 창의 · 인성교육이다. 그러나 그럴듯하지 않은 모토가 어디에 있겠는가? 특히나 창의와 인성은 어찌 보면 교육목적의 알파요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고 추상적인 모토가 아니겠는가? '신은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는 반 데어 로에의 말은 경이로운 창조물에서만 발견되는 원리가 아니리라. 교육의 비전이 올바르고 그 비전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교육의 방법(How)과 교육현장의 자발적 변화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필자는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을 타야한다는 점을,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도가 재미와 보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쌍방향의 발전(interactive development)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연하고 입체적인 교육과정, 범사회적인 교육의 참여, 교사역할의 변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경험중시의 유연한 교육과정

"깨끗한 생수와 안전한 집처럼 근본적 인권으로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2006년 조카의 수학 과외로 시작해 2012년 전세계 천만의 학습자를 도와주고 있는 칸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이 얼마 전 방한해 교육혁신가로서 주창한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칸 아카데미의 의의를 단순히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에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 칸 아카데미, 조지루카스 재단의 에듀토피아(www.edutopia.org), MIT를 비롯한 온라인 대중공개강의(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 IT와 지식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한 수많은 지식공유의 장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우선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이버 강의는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계속 반복해 들을 수도, 건너 뛸 수도 있다. 아울러 칸 아카데미가 시도했듯이 지식 맵을 만들어 제공할 경우, 학습자가 지식의 활용 목적에 맞게, 혹은 진로에 필요한 내용들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학교와 교실은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여야 할까? 학교는 '경험중시의 교육(learning by doing)', '공동체 교육(global community)'을 보다 강화하고, 지식습득은 이런 온라인 매체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풍부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의(creativity)는 상상에서 출발하고 혁신을 이루어 가는 과정인 바, 풍부한

상상력은 직간접의 많은 경험이 그 재료(resourc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읽는 것의 10%, 듣는 것의 20%, 보는 것의 30%, 보고 듣는 것의 50%, 토론하는 것의 70%, 경험하는 것의 80%, 나누고 가르치는 것의 95%를 기억한다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William Glasser 박사의 기억원리 연구는 우리의 교육이 왜 경험과 실천 중시의 학습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2. 범사회적 교육 참여와 지속발전 가능한 학습공동체 구축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과 관심사가 다 다르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학습은 나를 알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구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수긍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다. 실제 상황이 주어지고(real world based), 상황마다 맥락을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며 사람들은 제각기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찾아간다. 상황과 맥락은 구체적이고 늘 다르다. 물론 직관과 통찰력이 강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 속에서 무언가 패턴을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대응방안, 심지어는 법칙까지도 찾아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수히 많은 시도(trial)와 그로부터 얻은 경험과 실패의 교훈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을 포함해 많지 않은 자원과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나누고 상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제과 기업이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 참여해 소비자인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신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전략을 실제 상황처럼 토의하는 가운데 아이들만 창의성이 계발되고 기업가정신이 훈련되는 동시에 기업에게도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은 결코 부수적인 수확이 아닌 학습의 상호작용 효과와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우리의 계나 두레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품앗이 하고, 기회의 장을 나누는 학습공동체에도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적정기술이나 캡스톤 프로젝트 등 이웃이나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며 진정한 체험학습을 하는 시도들은 학습과 일, 일과 취미를 넘나드는 미래형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는 반이나 학년, 담임이나 전담교사와 같은 산업사회형 교육행정이 아닌, 나이의 많고 적음과 소속을 떠나 흥미와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루는 각종 동아리와 교육주체가 확대되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과 체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찰자이자 컨설턴트, 질문자이자 가이드인 교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만을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teaching)은 이미 컴퓨터와 미디어 매체, 심지어 사교육 시장에서까지 너무도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지식의 습득만이 '잘 살기' 위해 절대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교사들도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대상에 상관없이 매 시간 주어진 분량의 지식을 똑같이 가르치는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것에 정말 존재의 의의를 가질 것인가?'

이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반복과 선택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의 의의를 간과할 수

없듯이 교사의 수업방식과 학생에 대한 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의식으로 돌아온다. 온라인 강의나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권고, 활용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유도하고,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토론, 해결의 과정을 관찰하며 이 전 과정이 입체적인 평가(피드백)의 과정이 되게 하는 보다 다양한 역할로의 변신을 시도해봄은 너무 이상적인가? 물론 과정중심의 평가와 다면적인 평가가 개인 삶의 여적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 교육봉사단인 TFA(Teach for America)는 교수법의 혁명적 변화를 유도했다는 미 교육계의 찬사까지 들었다. 이는 단편적으로는 TFA가 낙후지역이나 소외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상당히 올렸다는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4~5천명의 대학생들이 그들이 가르친 경험을 공유하면서 개개 학생들의 특성과 수업방법, 그리고 그 효과성을 조사 · 분석하고, 현장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의 변화를 보다 맞춤형으로 이끌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창의 · 인성 교사연구회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 현장중심연구(Action Research)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많아지면 달라진다'는 클레이 셔키의 주장은 교육에서도 귀담아 들어봄직하다. 개인에게는 무의미할 정도의 시간이나 지식, 경험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것들이 모이면 생각지도 못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혁신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주체가 탄생한 것도 제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소수가 머리를 맞대고 골몰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참여하는 데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창의 · 인성 교육에서는 늘 끊임없이 개방과 공유를 시도하는 것이 여러모로 창의적이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은 배우기만 해야 하는가? 교사에게만 배워야 하는가? 학생이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교사는 교육계 밖의 현실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수 십번 듣거나 시켜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들이 '아하!'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낳지는 않을 것인지, 끊임없이 소통해 보자. 창의재단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 '내 인생의 교과서 My life e-book'이란 것이 있다. 이 사업의 의도는 작게는 독서를 강권하지 말고, 스스로 책을 만들다보면 저절로 많은 책들을 읽게 될 것이며, 크게는 교과서가 재미없다 하지만 말고, 내가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스스로 대안교과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책에 담긴 다양한 스토리가 곧 지혜가 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나누자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생교과서를 만들고 모으고 나누면 어느 새 학교 현장이 달라질 것이다. 비단 학생뿐이겠는가? 교사들도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관심분야를 동료 교사, 나아가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다방면의 사람들과 나눈다면 굳이 창의 · 인성교육을 해달라 떠밀릴 새 없이 스스로 혁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이러한 개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의 창의성이 개인 창의성의 합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학교장의 리더십이 아닐까 한다.

경남교육청의 창의 · 인성교육 이렇게 합니다

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창의인성교육담당 장학관 **박혜숙**

1.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창의 · 인성교육

창의 · 인성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수업내용, 방법, 평가의 개선을 위한 학교 모델 및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1월 '창의 · 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에 따라 구호가 아닌 '수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 · 인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집어넣는 교육'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강의 위주의 수업을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는 발표, 토론, 조사, 협력학습 등의 수업 변화를 위해 교과중심, 교과연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다양한 주제중심, 융합형 수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남교육청의 2013년도 창의인성교육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학교수업, 방법, 평가 개선을 통한 창의 · 인성교육 강화

2013년 창의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첫째, 교육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천하는 창의 · 인성교육 실현 둘째, 창의 · 인성교육의 확산 · 정착을 위한 사업운영 및 교원 연수 강화 셋째,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학생의 주도적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창의 · 인성 모델학교

창의 · 인성 모델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창의적 사고력과 협동심 등 '창의 ·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로 일반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학교이며 상시적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 · 인성교육 활성화 및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경남의 창의 · 인성 모델학교는 18교가 있다.

- 초(18교) : 가람초, 산청초, 율하초, 밀성초, 용현초, 남강초, 우암초(창원), 명도초, 동성초, 사천초, 수남초
- 중(5교) : 내서중, 신현중, 안골포중, 신반중, 합포중
- 고(2교) : 경남과학고, 마산여고

나. 창의 · 인성 수업연구회

창의 · 인성교육이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창의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문화 및 학교현장의 창의 · 인성 수업적용 확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 중심의 연구자료 개발 · 적용을 위해 창의 · 인성 수업연구회 40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 · 인성교육 전문성 함양 및 우수사례 공유 · 확산을 위해 중간 실천단계 평가와 성과 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다.

다. 창의 · 인성 현장 포럼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현장 교사들의 수업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를 위해 각 분야 창의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의 · 인성 현장 포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체험중심의 포럼 운영 · 안내하고 있다. 현장 포럼은 매회 신선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분과별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며 최신 교육 트렌드를 전파하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창의 · 인성교육 연수

창의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현장교원의 창의 ·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창의 · 인성 컨설턴트 양성과정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통해 하계, 동계 집합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 창의 · 인성교육 컨설팅

수업 속에서 창의 ·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학교현장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창의 · 인성교육 자율 진단표를 활용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내용 및 방법(프로젝트, 토론 실습 협동학습 등), 서술형 평가 확대 및 수행평가 개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적극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바. 창의 · 인성교육넷(www.crezone.net) 활용 확대

창의 · 인성교육넷(www.crezone.net) 사이트는 창의 · 인성 교육자료 및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로 창의 · 인성 모델학교, 수업연구회, 수업지도안 등 자료제공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3. 창의 · 인성을 키우는 학교 수업의 변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창의 · 인성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인식과 전문성 강화에 있다. 학교수업에서 교육과정 편성 · 수업방법 및 내용의 변화 · 평가의 다양화를 위해 창의 · 인성 모델학교 운영, 창의 · 인성 수업연구회, 교원 연수, 현장포럼 등의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들의 꿈을 위한 진로 · 진학 프로그램

글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성정기**

본교는 2013.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즐기고 배워나갈 수 있는 창의 · 인성교육 모델학교 및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올해 1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우수학교로 선정되면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영어라는 소재를 보다 즐겁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활기차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영어중점학교) 운영

▶ 정규교육과정 내실화/영어과 교수 · 학습 방법 개선

- 말하기 수업 운영 :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Class
- 쓰기 수업 운영 : Project-based Writing Class

▶ 학생 중심 · 맞춤형 교육

- 원어민을 통한 영어능력회화 및 Presntation 능력 신장
- 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Certificate of English Vocabulary : 영어어휘인증제
- English Debate Contest : 영어 토론 대회
- English Camp

▶ 창의 · 인성교육

- 영어문화체험을 주제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
- 노래하는 학교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 Class Song in English, Happy Plus School

마산여고의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스스로 배양해나가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즐거움과 놀이로 승화시키며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멋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맛있는 배움, 체험, 나눔이 있는 통큰보쌈 교육

글 신반중학교 교사 구남이

스토리텔링은 어느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으로 독특한 이야기의 구성과 차별적인 전개로 수용자나 관객의 마음을 의도한대로 설득하는 기법으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탄탄한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교육과 융합교육으로 탄탄토리 보쌈 스토리텔링 교과교육과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기와 재능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엮은 명불허전 명품스토리텔링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

⦿ 탄탄토리 보쌈 명품 스토리텔링 교육

• 프로젝트 데이

융합수업을 위한 4개의 교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융합수업 교과 영역 사이에서의 지식 전이 및 학습된 내용을 실생활 문제해결 능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두 개 교과 간 주제중심형 융합수업을 여덟 개 교과에서 실시하고 융합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데이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스토리텔링 수학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본인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곁들여 전달하여 듣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원리나 개념을 발견하고, 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깨닫는 학습방식으로 스쿨극장, 우리는 라디오 스타, 나도야 뮤직비디오 제작자, PR학습 등의 행태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명불허전 명품 스토리텔링 교육

• 스쿨 멘토링『비전캠프』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부족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동기부여에서 시작하여 유형별 학습법 진단검사 결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다양한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으로 진로 탐색 및 설계활동을 진행하며 쌓은 자신만의 스토리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서로 공유활동을 전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진로중심 동아리활동

Holland 진로발달 및 탐색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유형(RIASEC)을 고려하여 진로중심 동아리를 조직하고 직업카드를 활용한 자기이해, 진로모델링,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으로 진로탐색, 나의 스토리텔링 등의 진로단계별 활동을 평소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동아리직업체험의 날로써 학기별 1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행복한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인성효과 동아리활동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창의와 인성이 결합된 주제를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 동아리로 추천된 팀은 행복키움 페스티벌에서 프로젝트 연구 수행 결과물을 발표함으로 해서 스스로 인성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우암교육

글 우암초등학교 교사 정민화

학교라는 무대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저마다 소중한 큰 꿈을 갖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며 남과 더불어 서로 다르게 으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꿈이 무엇이냐?』, 『학교 오는 게 즐거우냐?』, 『공부 시간이 재미있느냐?』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Learning & Care 중심의 창의 · 인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 꿈이 무엇이냐

전교생 한자리 꿈키움	학습워밍업 독서교육	인성 · 생활 · 경제 푸르미 포인트
• 전교생 참여 15차시 운영 • 포트폴리오 및 꿈 성장일지 기록	• 아침독서 20분 책읽기 • 독서 릴레이와 꿈 도서 읽기	• 누적된 푸르미포인트 활용 • 전교어린이회 중심 자율 운영

2. 학교 오는 게 즐거우냐

문화예술교육	사계절 계절학교	우암배움터	교육공동체 참여
• 대학생 창의 · 인성 캠프 • 일과 중 특기적성교육	• 교과&창체 프로젝트 • 학교 CRM 개발	• 엄마 품 돌봄 교실 • 로봇, 생활과학교실	• 학부모 교육 기부 확대 • 내교 지역인사 진로교육

3. 공부 시간이 재미있느냐

창의 · 인성교육	스마트 교육	학습 Warming-up
• 교수 · 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학생종합평가시스템」구축	• 온라인 평가를 통한 개인별 학습 진단 및 처방과 첨삭지도	• 놀이시간 파워워킹과 뇌체조 (운동장 5바퀴 이상 걷기)

4. 운영자료

학생종합평가시스템

프로그램 안내 자료

푸르미포인트통장

꿈 성장일지

교육기부로 아름답게 빛나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클레이아크(ClayArch)는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의 상호 관계적 협력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은 과학과 예술, 교육, 산업을 아우르는 건축도자 분야의 전문 미술관이다. 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도자라는 장르를 통해 인간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건축은 아름답고 편리한 인간 삶의 발전을 돕는 과학기술이자 인간이 창조해낸 생활환경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은 교육기부를 활용한 체험활동 전문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름다운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을 찾아보았다.

● 클레이아크 진로탐험대 – 학교연계 고정식 프로그램

– 미술관 진로 : 소장품 관리자, 홍보디자인
– 건축 진로 : 픽셀하우스 모형, 미니타일 미니하우스

● 클레이아크 뮤지엄스쿨 – 학교연계 맞춤식 프로그램

– 정크아트 : 재활용품을 이용한 무대 만들기
– 티슈케이스 디자인 : 주제에 맞게 드로잉, 채색

● KB 박물관 노닐기

– 박물관 미술관 거점의 문화예술경험
– 아트, 건축 특강, 미니타일 십이지신 체험, 전시감상교실

● 아트+건축 즐거운 토요일

– 세계의 아트 건축과 건축재료인 타일을 사용하여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창작활동

● 도자체험

– 흙으로 문패, 화분, 시계 등 도자 작품 제작
– 점토의 조형적 기법과 재료적 특성을 경험

● 아트–키친

– 건축과 도자를 접목한 모자이크 타일 체험 프로그램
– 단체 활동으로 6종, 개인활동으로 8종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침 변경 –

글 경상남도교육청 상임변호사(학생안전과) **성수민**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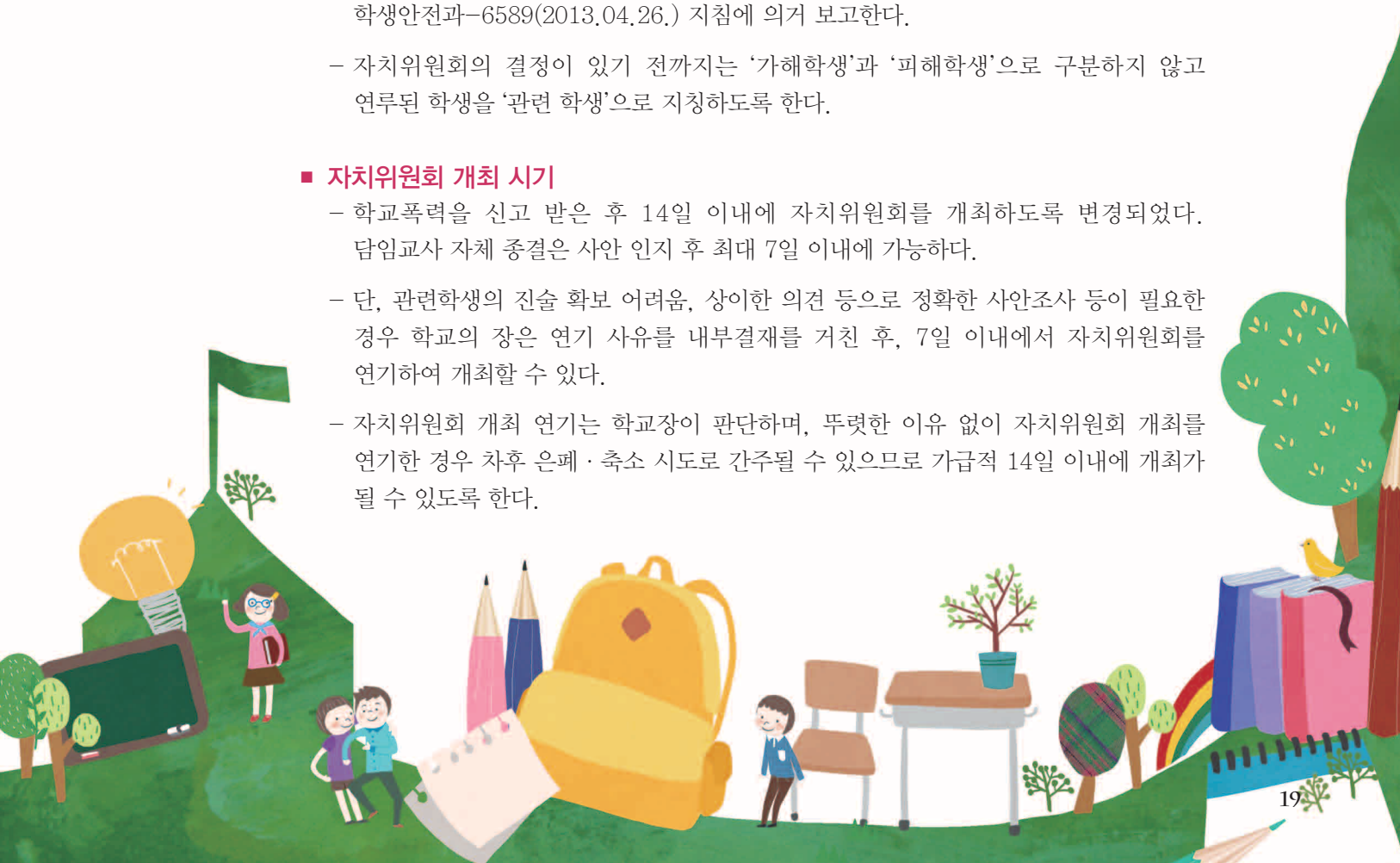
정부는 2013년 7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 · 의결하였다.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스톱불링 홈페이지(www.stopbully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들(2013. 9. 23. 학생안전과-1442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학교폭력 발생 시 보고 방법 변경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유선으로 즉시 통보(휴무일 포함)하여야 하고 서면으로는 24시간 이내(휴무일 제외) 보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 장학사에게 유선보고와 동시에 업무메일로 긴급보고하도록 한다.
-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하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직접 보고한다. 단, 특수학교는 학생안전과, 학교정책과에 동시 보고한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는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운영 가이드북에 있는 학생안전과-6589(2013.04.26.) 지침에 의거 보고한다.
-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루된 학생을 '관련 학생'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 학교폭력을 신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변경되었다. 담임교사 자체 종결은 사안 인지 후 최대 7일 이내에 가능하다.
- 단, 관련학생의 진술 확보 어려움, 상이한 의견 등으로 정확한 사안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연기 사유를 내부결재를 거친 후,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 개최 연기는 학교장이 판단하며, 뚜렷한 이유 없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한 경우 차후 은폐 · 축소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4일 이내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공책에 기록하는 사회 수업

글 김해 진영대흥초등학교 교사 **정철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제 및 교사의 발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공책에 기록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탐구하는 사회과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사고하지 않았어요.

초임 시절에 고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수업은 늘 어려웠다. 그래서 수업지원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영상자료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생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좋아보였다.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내용인데 왜 질문을 하지 않지?”, “분명히 궁금한 내용이 있을 텐데 궁금하지 않을까?” 그 답은 언제나 그렇듯 나의 수업방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론 또는 역사적 사실만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었지,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실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실을 가지고 ‘사회적 현상 및 사실’ 이라는 구슬을 꿸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2.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공책에 기록하고 나누도록 했어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교사의 발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생각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생각이며 반드시 공책에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하게 하였다.

공책기록은 기본적으로 코넬식 기록법을 활용했으며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했다.

빨간색 :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사의 중요 판서 내용을 기록
파란색 : 친구의 의견을 기록
검은색(연필) : 자기나름의 생각 기록
공책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 후에 중간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지우개로 지우지 말고, 두 줄을 긋고, 오른 쪽에 다시 기록하도록 한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자신의 사고의 변화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업 전에 교사는 그 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발문을 구조화 시킨다. 교사가 발문을 하면 학생들은 그 발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교과서를 참고해서 공책에 기록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눈다.

교사의 발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5학년 2학기 1단원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5/15)]

발문 1 : 공명첩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발문 2 : 공명첩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발문 3 :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상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발문 4 : 나라에서 공명첩을 많이 만들어 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발문 5 : 공명첩 말고 국가의 재정위기를 벗어날 다른 방법을 없었을까요? 모둠 토의 해 보세요.

학생들은 교사의 발문을 듣고 교과서를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발문3, 5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생각기록을 마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항상 기다려 주었고, 모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사고하고 기록한 후에는 협동학습의 구조를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특히 모둠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사회적 현상과 증거(사회과탐구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내세우는 태도를 연습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발표와 의견을 듣고 나서 교사는 발문에 대한 핵심내용을 판서하고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만 보충기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3. 질문과 토의가 많아진 사회 수업이 되었어요.

사회 수업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큰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흐뭇하다.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질문을 할 때 교사로서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나만의 힐링을 찾는 요즘이다. 이전에 단편적인 사회적 지식을 전달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궁금증이야 말로 수업의 열쇠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회적 현상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교사의 개입 없이도 학생들은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욱 더 잘 배우고 있었다.

수학도서를 활용한 수학과 독서고사

글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수석교사 손대원

1. 독서활동상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훈령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독서활동내용이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독서활동 성향을 파악하여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도, 이해수준, 독서 이후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독서기록장, 독서포트폴리오를 미리 미리 관리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주제 설정의 목적이 있다.

2. 우리 학교에서는

본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방학 중 필독도서 4~5권을 선정하고 개학을 하면 권당 10문제를 출제하여 전교생이 독서고사를 보고 있다. 처음 수학과 독서고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4년에 독서지도를 업무로 맡게 되었을 때이다. 기왕에 할 바에야 수학 책 1권을 필독도서로 선정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름방학 때 4권의 필독도서 중 수학도서는 수학비타민(박경미)을 선정하였다. 개학한 후 수학비타민을 뺀 나머지 3권으로 먼저 독서고사를 실시하였다. 다시 1주일 후 수학과 독서고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열심히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40문항을 개발하여 수학과 독서고사를 실시하였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2004.8.26) 이후 실시한 수학과 독서고사여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수학과 수업에 대한 이해도 돕고 학생들에게 수학이 재미있는 교과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생활기록부에 수학교과 독서활동 내용 기록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반영뿐만 아니라 수학과 독서고사를 위한 도서 선정 등에서부터 수학과 독서메뉴얼을 개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3. 도서 선정의 어려움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하며 소주제를 중심으로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야 하며 읽어서 수학적 의미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시중에는 이런 책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 편이다. 겨울방학에는 4권의 선정도서 중에서 수학과 선정도서는 수학나무(박경미)를 선정하였다. 지금도 수학 관련 도서의 문항 개발을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것 같다.

〈수학과 도서목록〉

도서명	저자	도서명	저자
수학비타민 플러스	박경미	이광연의 수학 블로그	이광연
수학콘서트	박경미	시네마 수학	이광연
멋진 수학을 만든 세상	이광연	이광연의 오늘의 수학	이광연
수학 오디세이	앤 루니		

이러한 것들도 주위의 여러 동료교사와 함께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2013년도에는 관심 있는 선생님과 수학과 독서고사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였으면 한다. 올해 2013년 여름 남양주 수동의 수학문화원에서의 제6회 Math Culture Festival(수학문화축제)에서 지금까지 학생들과 함께 나눈 내용과 함께 궁금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수학과 독서지도”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수학과 독서골든벨”이라는 주제로 수학과 선생님과 수학비타민, 수학나무에 나오는 내용으로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선생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오늘 올해 수학문화축제에 오셨던 경북의 점촌고등학교 박호문 선생님께서 교내 수학과 독서골든벨을 진행하셨다고 연락이 왔다. 이러한 수학문화 움직임이 과목별 독서고사나 과목별 독서골든벨 행사로 많이 이어지면 좋겠다.

더 높은 꿈을 향해 SKY-high!
합천 창의인성 교육과정

글 합천초등학교 교장 이현석

1. 꿈과 희망이 자라는 학교를 꿈꾸며

합천의 중심학교인 본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부모의 교육적 열의가 높은 반면 지역의 문화적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학교와의 연계가 적은 편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대한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고 보습 사교육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꿈을 가지고 가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교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하는 학습법과(학습 SKY)과 활동중심 인성교육(인성 SKY)으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창의 · 인성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SKY-high) 바로 여기 합천에서 작은 실천으로 큰 꿈을 실현 중이다.

2. SKY-high! 창의인성 교육과정 비전 수립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직원과 협의하여 만들어낸 SKY-high! 창의인성 교육과정 비전은 다음과 같다.

SKY	학습 약속	Self study Keep in mind Yearn for success 스스로 공부, 기억하기, 꿈을 향해 노력하기	SKY-high	창의인성
	인성 약속	Step Kind Yes 질서지키기, 친절하게 말하기, 폭력안하기	학생은 자신의 큰 꿈을 키워 가려는 실천의지	학교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합천 교육과정
HIGH	배움 중심 교과수업(학력, 지력 등)	Head		
	직접체험 창의활동(진로,체험신장)	Investigator		
	나눔과 실천 활동 건강한 도전	Global ethics Health		

3. SKY-high! 창의인성 교육과정 목표

미래 사회는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본교 교육과정 목표를 큰 꿈을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어린이로 설정하였다.

4. SKY-high!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본교는 교육부 지정 학부모 학교 참여 연구학교를 운영중이다. 교육활동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교육기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탄탄하고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교는 최초로 합천초등학교 스마트폰 APP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은 기존의 종이설문, 학교 홈페이지의 접근성의 불편을 개선하고 상시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있다. 앱은 학교일정 알리미, 가정통신문, 설문조사코너,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위한 노력들

1) 학생 참여 수업을 위한 SKY-high 수업 혁신 전략

SKY-high하는 교육을 위해 학년군별로 토의 · 토론학습, 협력학습을 강화하였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년군 수준에 적합한 방법(1~2학년; 마인드맵, 짝 토의 · 토론, 3~4학년; 모둠인터뷰, 생선뼈, 5~6학년; SWOT, 디베이트)을 집중 운영하여 토의 · 토론학습, 협력학습이 습관화되도록 하였다.

2) SKY-high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활발하였다. 배움중심

수업을 위한 전 교사 1인 1주제 탐구활동과 선후배간의 수업기술, 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에 대한 코칭, 동학년 팀티칭을 통한 부진학생 지도, 배움중심 수업운영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배우면서 더욱 더 잘 가르치는 자존감 높은 교사, 여유있는 교사, 친절한 교사가 되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과정중심 평가 강화를 통한 평가 방법 개선

본교는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을 위해 스스로 평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여 평소 학생의 연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교사는 기록하고 발전 정도를 진단하여 학생에게 안내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질문하고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어 진정한 평가의 목적을 실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 꿈과 끼를 자라게 하는 체험활동

1) 꿈 찾기 진로체험활동

진로교육은 특정 행사나 교과에서만 실시되는 범위를 벗어나 모든 교과에서 진로요소를 추출하여 매뉴얼로 만들어 운영하였다. 교과수업에 진로교육 전략과 학부모 협력 방안을 투입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다양한 직업의 탐색과 다양한 체험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기부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각 학년에서는 인력풀을 구축하였다.

2) 바른 인성을 꿈을 가꾸는 인성 교육

우리는 SKY 사수대! 본교의 전교생은 스카이 사수대이다. 스카이 사수대는 탄탄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가 되기 위한 합천 어린이 실천약속이다. 학습 약속으로는 스스로 공부하기, 학습장 정리하고 기억하기, 꿈을 생각하고 노력하기, 인성약속으로는 뛰지 않기, 친절하게 말하기, 고운 말 쓰기이다. 입학식과 동시에 스카이 선포식을 실시하여 스카이 사수대 활동 다짐을 하고 평소 스카이 캠페인과 우수자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또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확보하여 기본생활습관 및 기초 학습 교육을 실시하여 스카이 사수대활동을 정착시키고 있다.

스카이 사수대는 나 자신을 위한 학습력 신장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릴줄 아는 학생을 기대하며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5. SKY-high! 창의인성 교육활동 운영 성과

학생 ·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본교 교육발전을 위해 합천 SKY-high 창의인성교육을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운영한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어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학습면과 생활면에서 지켜야할 서로의 약속인 SKY사수대 실천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잠재능력을 발현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셋째, 토론 · 토의 학습, 평가방법개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기부 실천으로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는 교사상이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SKY-high 창의인성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 교사 ·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합천초등학교를 만들고 싶다.

3S-UP 교육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글 진주고등학교 교장 **정명규**

88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원년의 해인 작년(2012년), 과거의 명성에 걸맞은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학교특색 교육활동으로 바른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2년 학력향상 우수학교, 동아일보 발표 2013년 일반계 고교평가 경남 공립고 1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성과의 밑바탕이 되는 바른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Spirit Education

'마음공부' 및 '남명학' 체험학습으로 올곧은 선비정신 고양

학교특색사업으로 매주 화요일 정규수업 시간 1학년 학생들은 '마음공부'와 '남명학' 강의를 듣는다. 이를 위해 작년 초 원경고등학교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협약을 맺었다.

가.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 나를 키우는 '마음공부'

'마음공부'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마음의 경계 찾기, 분별성 · 주착성 · 은혜 찾기 등 실제 자신이 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찾아, 그것을 갈무리하여 글을 쓰고, 발표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고 한다.

나. 남명선생의 경의사상(敬義思想)으로 실천적 지식을 키우는 '남명학'

'남명학'은 우리 지역의 대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敬義思想)을 비롯한 선생의 삶과 정신을 교실에서 배우고, 선생의 발자취가 남겨진 산천재, 덕천서원, 신해정 등을 탐방하여 그 뜻을 되새기는 교육이다. 또한 경상대학교 예절관에서 우리가 지녀야할 바른 예절에 대한 체험 교육을 한다. 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올곧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2. Service Mind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배려와 나눔 정신 고양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고, 재능을 나누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학교에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의 자매결연기관인 경남노인전문요양원, 진주요양원, 엠마우스요양병원, 진주프란체스코의 집에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들어드리는 활동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역축제 참가 및 진행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도움반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익혀가는 '해피투게더' 동아리활동,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아동센터나 중학교에 나누는 '수나누美(수학동아리)', 'BBC(과학동아리)' 동아리활동 등 더불어 가는 세상을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

3. Self-Control
극기체험활동으로 극기심과 도전정신 함양

대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 경험과 극복 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를 갖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 등정과 한라산 등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천왕봉 등정은 학부모와 동창회의 참여로 부모님과 선배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역의 젊은 동창들로 구성된 용반봉무회에서 전액 지원하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기도 한다. 한라산 등정은 모둠별로 미션 수행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여 협동심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랑과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위한 남가람 둘레길 걷기대회(20㎞)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생각의 열매를 키우는 생활 속 수학 놀이

글 통영초등학교 교사 **이연욱**

1. 놀이와 함께 커가는 우리 반 아이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의 놀이 활동이 흥미롭다. 그 시작은 수업시간에 쓰고 남은 작은 스티로폼 공이었다. 어느 교실에 있을 법 한 일처럼 한 아이가 '톡. 톡. 톡.' 공을 튕겼다. 그 때부터 공은 '톡톡톡' 소리와 함께 교실 속에서 작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쉬는 시간 '톡. 톡.'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이제 공 하나에 두 아이다. 주고받기 놀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어지던 공놀이는 며칠 사이 미니 탁구가 되었다. 점심시간으로 시간을 옮긴 공놀이는 서브와 듀스라는 말과 함께 게임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재미있고 흥미진지하게 진행되는 게임은 학년 초부터 점심 축구에만 빠져 있던 아이의 발길도 교실 책상 주위로 돌려놓았다.

사실 작은 공놀이가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1학기에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바둑판과 알을 가져와도 된다고 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수준은 알까기나 오목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바둑판 가득 검정알과 흰알을 차곡차곡 두면서 바둑을 둔다. 한두 아이가 두던 것이 이제 알음알음 배우고 가르치더니 그 숫자도 늘었다. 오목 훈수를 조금씩 두던 나도 이제 배워야할 판이다.

2. 계산하고, 시험 치는 수학이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지만,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서서히 수학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많은 아이들이 반복된 계산위주의 학습과 시험에 지루함을 느끼고, 못하는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결국 다수의 아이들은 수학이 싫다고 말한다.

이런 교실의 모습은 국제 성취도 평가 협의회(IEA)의

'2011 수학 · 과학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초등은 세계 2위, 중등은 세계 3위이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수업으로 시작된 수학이 시험과 함께 마무리되고 결국 학교의 문을 나서면 수학과는 영영 이별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몇 해 전 수학박람회를 관람했던 적이 있었다. 생활 속에 숨겨진 다양한 수학적인 지식을 발견하고 재미있는 수학 교구들을 둘러본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 수학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자 학기 초 아이들에게 큐브를 가르쳐 주었다. '다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였지만, 이제 완전히 다 맞추는 친구가 생겼다. 그 아이는 처음에 '어려워요.', '선생님, 대단해요.'를 연신 외쳐댔지만, 지금은 나의 수준을 넘었다. 때때로 현란한 손놀림으로 자신이 개발했다는 새로운 큐브 무늬 만들기를 선보이면 나는 '우와, 대단하다'를 연발할 뿐이다.

올해 우리 학교는 수학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되었다. 그 덕택에 평소 접할 수 없던 다양한 수학 놀이와 게임, 아이들과 함께할 만한 내용을 선생님들과 협의 후 선정하여, '통통통 수학이야기'라는 교재까지 마련했다. 올해 연구학교를 하면서 더욱 좋았던 점은 관련된 교구를 마련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그 중 5월에 실시했던 교육기부를 통한 「4D프레임」 시간에는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주제는 '시에르핀스키삼각형' 만들기였다. 1인당 1개의 정사면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정사면체로 모둠별로 다시 더 큰 정사면체를 만들었다. 다시 모둠에서 만든 정사면체로 더 큰 정사면체를 만들어갔다. 마지막에는 우리 반에서 총 32개의 정사면체로 2개의 정사면체를 만들었다.

그 날 우리는 좀 더 큰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리 반과 다른 한 반에서 만든 정사면체를 모두 모아 더 큰 정사면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교실에서는 만들 수 없어 넓은 복도로 자리를 옮겼고 모두 총 64개의 정사면체를

모아 1m 20cm 정도의 정사면체를 완성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손수 만든 정사면체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은 단순한 삼각형 만들기가 아니라 아이들 가슴 속 가득 큰 꿈이 가득 자리 잡는 것만 같았다.

3. 더하고 싶어요, 선생님

'통통통 수학 이야기' 교재에는 다양한 수학 활동들이 담겨 있다.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수수께끼 같은 논리수학 문제, 스도쿠, 펜토미노 등이다. 이 중에서 며칠 전 우리 반은 하노이 탑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들이 작은 탑 하나를 얼마나 집중해서 옮기는지 보는 내가 침을 꼴딱 삼길 정도였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만 정리해야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더하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계산하고 시험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학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반에서는 더 많은 수학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12월에는 프렉탈의 원리를 적용한 입체카드 만들기, 종이를 접고 자르는 활동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눈 결정으로 교실 가득 꾸밀 일도 벌써 기대된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생활 속에서 수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학의 실력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

글 편집위원 홍연숙

창원천광학교 교사 **신수진**선생님을 만나다.

장애를 극복하기까지...

Q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A.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2003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올해로 교육경력 11년차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등부에서 지체부자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전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초에 교육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하는 스승의 날 기념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한 수기공모전에서 학창시절의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이신 고3 담임선생님과 고3 생활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운 좋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Q 수기를 공모하게 된 계기와 수상한 소감을 말해주세요.

A 수기를 공모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스승의 날 수기를 공모한다고 하는 공문을 전체적으로 공람해 두었는데 그 공문을 읽다가 보니 저의 마지막 학창시절인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이야기를 풀어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응모를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 사연이 당선되어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학창시절 12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 중 하나인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힘들지 않고 슬기롭게 보낼 수 있었거니와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담임선생님이신 곽상순 선생님께 작게나마 스승의 날 선물을 해 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Q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어릴 때 신생아 황달이 잘못되어 뇌성마비를 앓게 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평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학교생활을 처음부터 특수학교에서 시작하려고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에 찾아갔으나 특수학교 측의 권유로 일반학교에서 초등부 1학년 과정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찰나에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의 잦은

마찰과 불화를 겪으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려고 맘을 먹고 고입준비를 거의 하지 않아 그 결과 낙방하게 되어 고등학교를 한해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같은 분위기일 거라 생각하고 기대보다는 그냥 졸업장이나 따자는 마음가짐으로 다니게 되었는데 저의 우려와는 달리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거니와 기회도 공평하게 주시고, 저만 보면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부터 비로소 저도 그 용기와 칭찬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고3 담임선생님 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권유로 특수교육을 대학에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A. 제가 학창시절 12년을 보내면서 가장 제가 갈망했던 것이 기회의 균등이었고, 동시에 교사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말 한마디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처럼 일반인들과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기와 희망이 담긴 말 한 마다에 자극을 받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되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스승의 날 수기의 주인공이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 교사가 인생의 조력자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우리 학생들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학생상담 분야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Q 특수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A. 7년 전,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순회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회교육 대상학생은 장애가 너무나도 심하여 누워서 생활하는 학생이었으며, 작은 기독교 시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의 장애상태를 봐서는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아주 재미있고 보람된 1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잠깐 하다 알게 된 학생이 하루는 감기몸살이 너무 심하여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딱히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제가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학생이 그 때 기억을 잊지 않고 특정기념일이면 어김없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고 나중에 자기가 잘되면 선생님 찾아가겠다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특수교사는 제자를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데 몸이 불편하여 직접 찾아올 수는 없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봐주는 학생이 있어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어느 누구든 직장생활을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보니 그에 따라 오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부족한 점을 잘 메꾸어 주고 도와주는 직장동료와 친구들, 그리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부모님이 곁에 계시고, 또한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맨토의 역할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만족합니다.

나아가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이 2007년도부터 열린 만큼 장애를 가졌지만 교직을 희망하는 분들과 교직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나를 수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갔으면 합니다.

삶의 향기

글 김해 대청초등학교 교사 **진영순**

얼마 전에 나 자신을 힐링한다는 명분으로 지인들과 함께 사천곤양 다솔사 템플스테이 길에 올랐다. 자동차 안에서 '삶의 향기'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후배의 제의를 받았다. '삶의 향기' 제목의 묵직함에 피식 웃고 귓전으로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라는 낱말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꽤 오래전에 서점에 들러 책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었다. 제목에 매료되어 산 '향수'라는 책이었다. 향기에 집착한 인간의 파멸을 그린 내용이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거나 떠올렸을 때 기분 좋은 사람, 강하지도 역하지도 않는 은은한 풀꽃같은 향기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다.

교직생활 31년.

첫 발령지의 모임의 나의 별칭은 겨자였다. 아닌 것에 대해 톡 쏜다는 뜻의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때의 나의 향기는 개성 강한 백합꽃 향기나 장미꽃 향기였을까?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20년 가까이 수채화 동아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나의 필명은 물빛 풀빛이다. 풀향에 관한 인연이 있음일까?

몇 년 전부터 야생화 사랑에 푹 빠졌다.

아파트 베란다에도 학교화단에도 야생화를 사다 심었다. 작은 꽃이 주는 기쁨과 다른 사람이 예뻐해 주는 기쁨에 사랑을 쏟았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 학교 화단에는 야생화가 제법 어우러져 여기저기 꽃을 피우고 백리향 꽃향기가 바람에 흔들려 솔솔 향기를 품어내고 있다.

야생화를 키우면서 백화등 꽃향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산에 올라가면 봄바람에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백화등 꽃향기, 내가 찾던 바로 그 향이었다. 그 뒤 얼마나 오랫동안 백화등 사랑에 빠졌던지……, 꽃이 좋은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 물, 통풍, 영양분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랑과 관심임을 알았다.

나만의 향기, 인위적인 향기가 아닌 내 내면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담금질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틈틈이 즐기는 나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양분이 되어 내 삶을 향기롭게 해 줄 것이다.

공부와 인성

글 의령 가례초등학교 학부모 **임봉순**

둘째 애가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쯤 뒤의 일이다.

어느날 아들이 받아쓰기를 했다고 했다. 아들은 자랑스러움이 섞인 해맑은 얼굴로,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했다. 얼마 받았으-께?"

나는 "백 점 받았니?"라고 묻고 싶은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너무 기대가 큰 표현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기준을 조금 낮춰 말을 꺼냈다.

"60점 받았니?"(아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70점?" (확실히 아이의 얼굴에서 해맑음과 자랑스러움이 사라졌다. 잘못했나?)

"아니, 40점 받았어!" 나는 급 실망했다. 지 형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래 처음이니까, 그 정도면 잘했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하자"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도 아이의 받아쓰기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가도 둘째아이의 학교 성적은 어디가서 자랑하기엔 좀 부족했다. 공부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아이에 대한 욕심을 없애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면, 하기 싫어 몸부림치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고 문제집을 풀리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던 아이가 3학년때 고열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누워 끙끙대는 아이를 보며, '인생에서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몸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에게 공부 때문에 너무 다그치지 말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하자고 다짐했다.

요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주 4시간 이상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와 그 밖에 합창, 사물놀이, 연극 등의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 인성과 청렴교육을 담당하는 김호연 선생님에 따르면, T.Lickona의 인격교육론에서 강조하는 덕목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6덕목 등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아이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정직, 책임, 약속, 절제, 배려, 존중, 용기, 협동, 공정 9개를 선정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녹여서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고마웠다.

그래 공부보다는 인성이야.

아들아 !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있고 용기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주렴!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원제: 비행의 기술)

–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 –

안토니오 알타리바 | 킴 (지은이) |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긴이) | 이미지프레임(길찾기) | 2013-07-10

창원신월초등학교 교사 **김진웅**

사람의 인생을 꿈에 비유하자면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큰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 인연 중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커다란 인연이 또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대화나 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다소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부모, 자식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원제: 비행의 기술)'에서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하게 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온다. 의용군으로서 스페인 내전을 겪은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다 2001년 5월 4일 양로원 5층에서 자살한다. 아버지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작가에게 양로원으로부터 편지가 한통 날아온다. 아버지가 1일이 아닌 4일에 돌아가셨으므로 양로원 이용료 34유로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따지고 보면 양로원의 관리 소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법원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작가는 부친상을 당한 자식의 애도를 존중해 줄 것과 노인들의 보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3년 뒤, 양로원은 자살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작가를 고소한다. 34유로에 대한 연체금과 그동안 불어난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양로원 측의 비인간적인 관료주의에 절망한 작가는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세청까지 끌어들인 양로원은 작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의 상속세까지 조사하여 작가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성공한다. 언론사에까지 손을 뻗쳐 작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작가는 아버지가 남긴 글과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한다. 작가는 양로원의 관료주의에 패배하면서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을 포기한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왜 자살했는지를 이해한다. 작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스페인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있다. 말년에 두더쥐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망상에 시달리다 양로원에서 초라하게 자살한 노인이 아닌 정의와 평등 그리고 사랑과 번영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였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태어나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와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나 친구와 함께 나무 자동차를 만들며 기술자로서의 삶을 꿈꾸었다. 비극적인 사고로 친구를 잃은 후에는 도시로 떠나 입대를 하고 의용군으로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다. 프랑스에서 비참한 난민 생활을 겪기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 과자 공장에 몸을 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매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무너지기만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뒤, 작가도 인정이 매몰된 관료주의를 마주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 느꼈을 감정에 공감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 초회 한정판의 가격은 34유로로 책정되었다. 양로원이 자신에게 청구했던 34유로라는 가격을 통해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적나라한 표현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어 한동안 출판이 금지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다시 출판되고 있다. 만화책이라 한권을 읽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읽고 나면 두꺼운 책 한권 못지않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독서토론으로 한 걸음의 탄탄한

인성교육 UP '아고라북'

글 김해 한림초등학교 교사 **양미현**

1. 뛰기 전에 제대로 걷는 법부터

해마다 학교별 대항 독서토론 대회가 열린다. 이를 위해 사전에 어느 학교나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애를 먹는데도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달리기 대회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근거를 바탕으로 찬반 토론 이전에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태도와 능력을 습관화하는 체계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 교사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다양한 연수를 통해 2010년 몇몇 선생님과 뜻을 같이하여 3여년 동안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 왔다. 매월 1회 꾸준히 독서토론을 하면서 학생 동아리 운영과 교과 수업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에 확신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확산해 나가고 있다.

2. 독서토론회 '아고라북' 동아리 운영

인성교육중심교과연구동아리 독서토론회 '아고라북'은 초 중등학교 교사 외에 상담사 등 일반인도 참여하여 매월 1회 정기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하여 왔다. 연금술사,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자기계발서와 동화를 비롯하여 열하일기(박지원), 논어, 파우스트 등 인문고전 독서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익힌 토론 활동을 학생들에게도 바로 적용하며 그 과정을 동아리 누리집(http://cafe.daum.net/agora-book)에서 공유하고 있다.

본 동아리에서 적용하고 있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역할극(돌아가며 소리내어 읽기), 경험나누기, 토킹스틱을 활용하여 토의, 명문장 베껴쓰기, 비판적 글쓰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활동 과정 속에서 수용과 인정, 배려, 경청 태도 등의 인성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터득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한 번 해봄으로써 토론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매년 독서토론 적용 과정의 기저가 된 도서 '책 속에서 보물을 찾는 천재독서법'의 저자를 초빙하여 현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실제 모의수업을 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소속 학교에서 방학 중 5~6학년 대상으로 독서캠프(2012년~2013년 방학중 운영)를 열어 독서토론 활동을 적용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과 수업에도 진로와 생활지도 등 주제별 토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하였다.

3. 거목이 되어가는 생각나무들의 성장

본 동아리에서 연계하여 중학생 제자들로 구성 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를 3년 전부터 운영하였는데 초기에는 토론 후에도 감상문을 5줄 이내로 표현하던 학생이 김해도서관 주최 공모전에서 장려상(2012년)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교내 대회에서 정기적으로 입상하는 등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과 토론 리더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배려하는 역량을 갖추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본 독서토론 과정에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소감을 표현하였다.

- 책을 읽고 나면 내 생각 밖에 몰랐는데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질문에 대답해야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것 같다.
- 베껴쓰기란 좋지 않은 것인줄 알았는데 책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어 좋았다.
- 역할극으로 돌아가며 읽으니 실감나고 내용에 집중하게 되었다.
- 토킹스틱이 있을 때만 말하니, 참는 마음이 길러진다.
- 생각이 같을 때는 반갑고, 서로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4. 마치며

본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있다는 것을 토론 체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용과 인정, 배려의 인성을 갖추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남을 설득하는 찬반 토론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이러한 열린 토론의 장은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따돌림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다양한 관점과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공유하며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들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지원을 통해 그 질높은 경험이 학생들의 역량으로 발휘되기를 바래어 본다.

BOOK 만나다

하류지향

우치다 타츠루 저/김경옥 역 | 민들레 | 2013년 7월

능력 있고, 체력도 있고, 어떠한 공동체에도 귀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회사 전근 명령 하나로 곧바로 해외 지점과 공장에 부임할 수 있고, 임금이 높지 않은 것.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상이다. 이 책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개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이면을 들춰보게 하고, '자기 찾기'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숨어 있는 함정을 들여다보게 한다. 국가주의, 집단주의 교육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진보주의 교육이 개인을 고립화시키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우치다 선생의 통찰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이들도 귀기울여볼 만하다. 또한 홀로 리스크를 감수하며 하류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왜 책을 읽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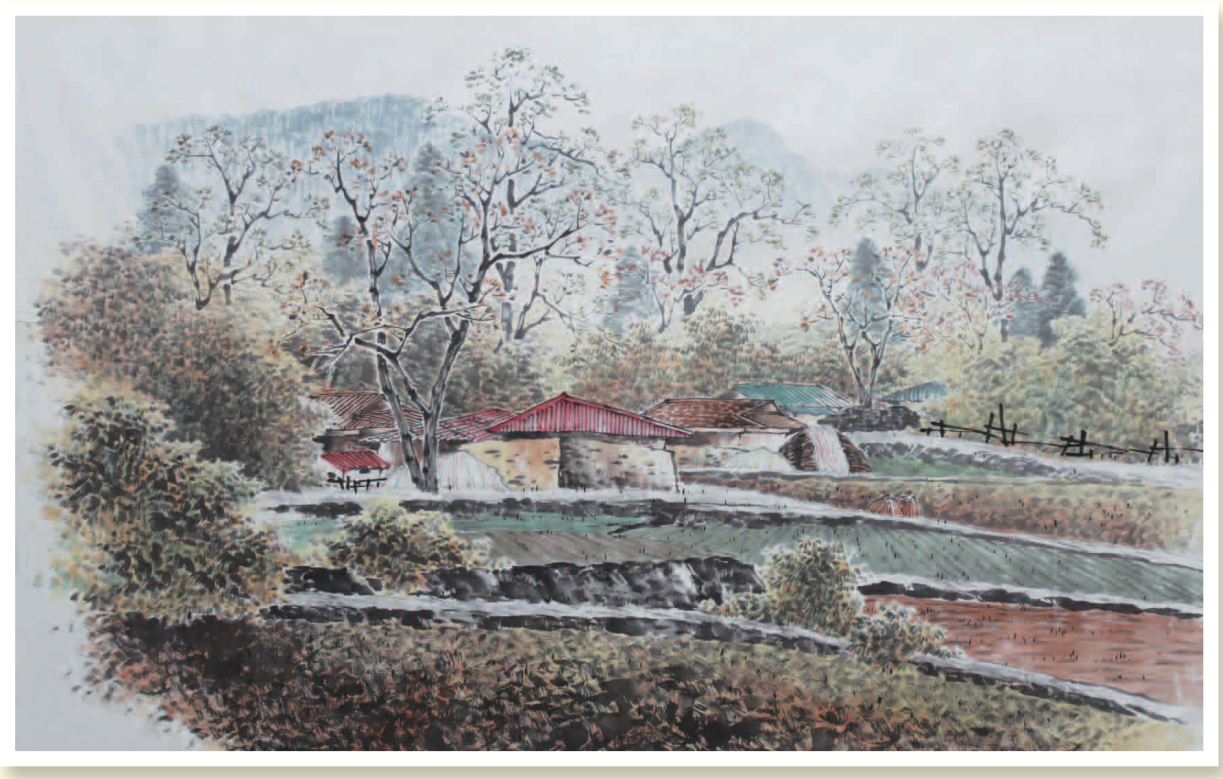
샤를 단치 저/임명주 역 | 이루 | 2013년 4월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에, 지적인 소요(逍遙) 끝에 저자가 내놓은 심오하고 원대한 대답은 "독서를 통해 소멸과 죽음에 맞서 결국 불멸에 이르는 것"이다. 이 책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박물관에 버금가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마네의 그림이나 모나리자를 감상했어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흥을 한 권의 미술 비평서를 읽으며 느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명화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왜 책을 읽는가』는 독서에 있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저자의 독특한 독서론은 고전에서부터 뱀파이어 소설, 문학과 외설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 대가들의 대표작, 일반적인 독서 행태까지 거침없이 이어지며 독자들의 지적 유희를 만족시킨다.

인생수업

법륜 저/유근택 그림 | 휴(休) | 2013년 10월

『인생수업』은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되어주고, 마음 저 편에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문장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을 이야기

산들 바람 불어와
빈 들녘 스쳐 지날 때면
가을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씨앗 뿌리며 간절했던 소망들도
모진 비바람에 굳건히 지켰던 꿈들도
비로소 결실 맺어 나눠 주던 사랑들도
빈자리 새로운 꿈으로 채워질 희망들도

장현숙 / 현) 창원 사화초등학교 교사

• 경남 초등교사 예능경진대회 조소, 한국화 부문 수상 • 2012. 성산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특선

Dream Maker 꿈나르미 경남교육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시행 계획

1. 시상부문 및 규모

표창훈격	시상 내용	구분	대 상	총 시상수
교육부 장관상	상장 및 상패	기관 부문 (60개)	기업	12
			공공기관 · 출연연	15
			대학(교)	10
			기타 단체 · 협회	13
			대학생 동아리	10
		개인 부문 (27명)	시 · 도 교육청(학교 관계자 포함)	17
			교육기부 기관 관계자	10
		합계		87

2. 기관부문 접수

○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유 · 초 · 중 · 고교 학생에게 교육기부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

○ 접수 기간 : **2013.10.16(수) ~ 11.4(월)**

○ 접수처 :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www.teachforkorea.go.kr, 전자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055-268-1518)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